

이야기 3 : 요셉2 (총리가 된 요셉)

주제말씀
[창세기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처음 칠 년 동안은 풍년이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지요. 애굽의 신하들은 요셉의 말대로 곡식들을 창고 마다 가득 가득 쌓아 두었어요.

칠 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비가오지 않아 논과 밭의 곡식이 말라 죽었지만 지혜로운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요셉은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애굽 땅에 양식이 많다는 소문이 멀리 퍼져 나갔어요. 가뭄으로 굶주린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너라.”

열 명이나 되는 요셉의 형들은 막내동생 베냐민만 남겨두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금방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은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를 몰래 살피러 온 자들이 아니냐?”

형들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형제가 모두 몇 명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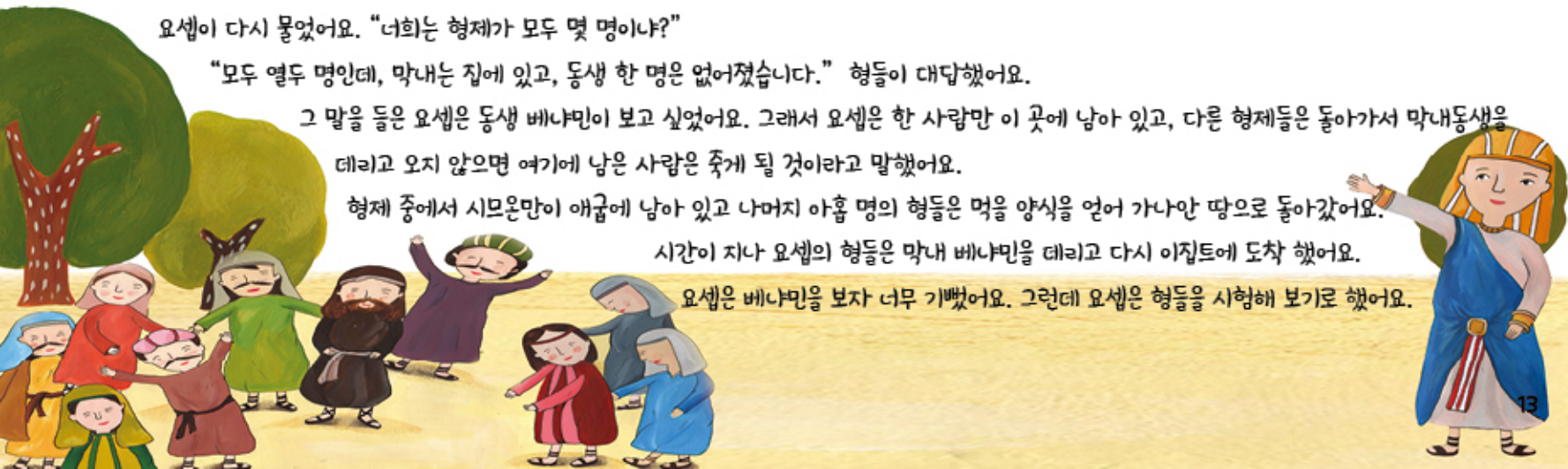
“모두 열두 명인데, 막내는 집에 있고, 동생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형들이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만 이 곳에 남아 있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서 막내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에 남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형제 중에서 시므온만이 애굽에 남아 있고 나머지 아홉 명의 형들은 먹을 양식을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지나 요셉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에 도착 했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가져갈 양식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 두었어요.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베냐민을 잡아 두었어요. 형들은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까지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형들은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막내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셉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웠던 형제들과 열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으니까요.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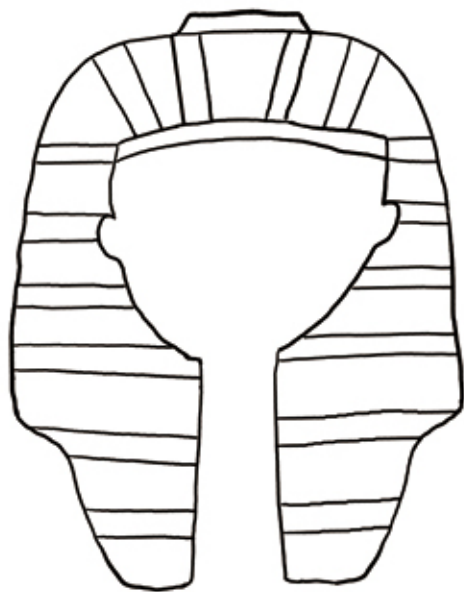
형들의 잘못을 용서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50:20)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활동 1. 애굽의 총리가 머리에 쓰는 모자를 예쁘게 색칠하고 잘라서 요셉의 머리에 붙여보세요. (준비물: 색연필, 가위, 풀)



완성된 이미지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